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승가다운 선거' 기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31일로 예정돼 있는 조계종 제13대 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회의원의 자격기준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문을 담은 발표문을 내놓았다. 발표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청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총회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3대 중앙총회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 활성화, 자정능력 향상, 한국불교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가연대는 이같은 소견과 함께 12대 총회에 대한 평가도 곁들이고 있다. 평가에 따르면, 98, 99년 중단사태를 수습하고 불협화음이 종단을 이끌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인사 및 재정 투명성, 폭력적 문화종교 개선과 교단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은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이 매우 저조했다는 비판도 포함돼 있다.

많은 불자들은 과거의 총회의원 선거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폐단을 떠올리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재가연대의 요청은 바로 이번 재가 불자들의 우려와 바람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가 열릴 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당수 교구본사의 후보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대선정국을 보며 불자들은 이번 총회의원 선거가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선출된 총회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입법활동을 벌이길 기대한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깨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54634-3429 일양: ☎59353-1196

## 스님들 노후걱정 보험가입 급증

### 생보험 집계 2년전의 3배나... 50대 가장 많아

#### "종단차원 노후복지제도 시급"

스님들의 노후대비 보험가입이 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최근 2~3년새 연금보험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려노후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밝힌 삼성생명의 '성직자 노후대비 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성직자스님, 목사, 신부의 보험가입 건수는 모두 1만1천260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62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성직자들의 가입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서, 지난해 월평균 1천 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가량(3천397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대략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협회는 또 보험에 가입한 스님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45% 가량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30%,

40대가 25% 정도라고 밝혔다.

스님의 보험 가입 증가는 동부생명, 대한생명 등 유명 보험사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보험사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스님들의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종단과 사찰이 단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보생명 은 최근 스님을 대상의 '연화연금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동부생명 영정동 동서울지점장은 "연금보험에 대한 스님들의 문의전화량이 심심치 않게 온다"며 "보험업계에서도 불교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스님들의 연금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노후대비나 보건, 의료 등 종단차원의 노후복지 대책이 진각종의 노후복지시설인 기로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교구 본·말사 중심의 '승가연금제'나 노후복지원 및 스님 전용 병원 건립 등의 대안이 심심찮게 거론됐지만 지금까지는 말잔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스님들이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본격적인 노후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이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17일 시작돼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광우 전국 바구니회장,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원장, 서동진 불교진흥원 이사장, 이날기 공경가래위원장, 박문석 문화부 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엔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의곡사 괘불(정종우 작, 1938년) 앞에서 참석자대표들이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佛法 예술로 승화... 불수록 환희심"

### '아름다움과 깨달음' 17일 가나아트서 개막

20세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이 17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로 다양한 기법의 근

현대 불교미술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조소 예술가인 김복진씨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1939)'을 비롯해 정종우씨의 '의곡사 석가여래좌상 괘불(1938)', 근대 대표 유희가인 오지호씨의 '공주 무등산 아미타 후불탱화(1954)', 현대 채색화의 새 경지를 개척한 박성강씨의 '청담스님(1953)' 등 최고작가와 원로·중견 작가 41명의 작품 72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3면으로 계속

##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연말까지 사은행사... 관세음보살도 증정  
10월부터 구독료 월 5천원... 기존독자 4천원

구독료를 내실 때 은행 지로 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매월 1회 지로송금을 보낼 때마다 용지값 우편요금 등 건당 210원이 듭니다. 게다가 연체로 인해 3~4회씩 지로송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가독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독제정의 비용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갑니다.

반면에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건당 비용(은행 수수료는 지로방식의 31%정도로 낮아집니다).

이에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의곡의작, 27cm×37cm, 시종판매가 2만 원 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한편 구독료가 이달부터 신규독자에 한해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독자에게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번 사은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오니 적극 동참하셔서 뜻 깊은 인연이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자동이체 문의: 고객센터 (02)737-0090



◇의곡의작 '관세음보살도'

현대불교신문사

## 전계 대화상 새로 추천

조계·태고종 25·31일 원로회의

조계종과 태고종이 25일과 31일 각각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조계종은 25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원로회의를 열고 △한 전계대화상인 범룡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전계 대화상 추천의 건 △진제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의 건 △중앙총회의 원로의원 추천권을 원로회의로 이관하는 안 등 지난 총회에서 상정했던 중점안의 12대 중 회 마감에 따른 자동폐기건 △광조스님(총회의원)에 대한 사무처장 임명동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태고종은 31일 오전 11시 태고사에서 원로회의의 발족이후 첫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명우·김철우 기자

## '직지' 가치 세계로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재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청주시는 14일 1억5천만 원을 들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를 촬영하고 국·영문 해설판을 만들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직지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뜻에

한명우 기자

## 불자 골퍼 박세리 만나다

11면

# 아름다움과 깨달음 -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 모십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근현대기의 불교문화를 기저로 한 유명 미술가의  
주옥과 같은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최초의 전시회입니다.  
40여 작가의 70여 작품이 진열되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람바랍니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김도후 합장

(사) 불교문화산업기획단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7층

### 전시 일정

- 서울전 ● 일 시 : 200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 장 소 : 가나아트센터(서울 평창동)  
● 문 의 : 02-725-1132
- 경주전 2002년 11월 2일 - 11월 19일(선재미술관)
- 속초전 2002년 11월 22일 - 12월 1일(속초문화회관)
- 여수전 2002년 12월 초 (여수문화회관)

특별강연회 「한국 근현대미술의 현황과 과제」  
● 장 소 : 가나아트센터 아카데미홀(서울 평창동)  
● 일 시 : 10. 26 (토) 오후 2시 - 5시  
● 내 용 : 한국불교미술의 특성/정충시(동국대학교 박물관장)  
현대불교미술의 과제/최태만(서울신산업대 교수, 미술평론가)  
아름다움과 깨달음 불의 의의/윤범모(경원대 교수, 미술평론가)

